

보성군 '드림-업 프로젝트'로 청년 안착 돕는다

고향사랑기부금 6천만원 투입
단계별 최대 50만원 맞춤 보조
18-49세 청년 대상 선착순 혜택
자격증 응시료·취업 성공수당 등

보성군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종합 지원책을 제공한다. 4월 보성군에 따르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기 위한 '2026년 보성 청년 드림-업(DREAM-UP) 프로젝트'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보성군 고향사랑기부금 100%로 마련된 총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혜택을 제공하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맞춰 크게 세가지로 촘촘하게 세분화됐다.

우선 '역량강화지원금'은 취업의 필수 관문인 자격증 취득을 돕는다.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익·토플·토픽 등 공인 어학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연 최대 3회까지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취업·창업 활동지원금'은 본격적인 구직 및 창업 준비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 미보유 청년을 대상으로 면접용 증명사진 촬영, 취업 교재 구매, 창업 실무교육 수강, 전문가 컨설팅 비용 등

에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끝으로 취업 관문을 통과한 청년들을 격려하는 '취업성공지원금'도 마련된다. 2026년 1월1일 이후 취업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 필수)하고 있는 청년에게 20만원을 1회 지급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한다. 해당 지원금은 우선 활동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매일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거주 기간과 취업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꼼꼼히 심사한 뒤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학 인구청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현실적 벽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와 취·창업 준비 비용"이라며 "이번 드림업 프로젝트가 보성 청년들의 역량을 마음껏 키우고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지난해 순천 남파랑 씨워킹 참가자들이 순천만습지를 배경으로 견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남파랑길에서 여름 힐링을 즐기세요"

'씨워킹' 운영...6-11월 총 8회 진행
 순천시가 드넓은 바다와 갯벌, 갈대가 어우러진 코리야돌레길을 걸으며 자연의 매력을 만끽하는 '2026 순천 남파랑 씨워킹'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휴식기 7-8월 제외)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여정은 오는 13일 남파랑길 6코스에서, 두 번째 여정은 27일 6코스에서 열리며 이후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 운영된다. 남파랑길 6코스는 와온해변을 출발해 순천만습지를 거쳐 화포해변까지 이어지는 13.7km 구간으로 갯벌과 갈대밭 등 순천만의 생태 백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6코스는 화포해변에서 시작해 고즈넉한 어촌마을과 해안 데크길을 따라 구룡역까지 14.1km를 걷는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하며 순천만의 생태와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으며, 걷는 도중에는 도시락과 차를 나누며 온전한 쉼을 누리는 치유의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 인원은 안전하고 알찬 행사를 위해 회당 3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다. 참여 신청은 순천시 바로예약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시 관광과 체험관광팀(061-749-5809)으로 전화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혼자 걸으면 힐링이, 함께 걸으면 행복이 되는 순천 남파랑길에서 일상의 위로를 받는 특별한 하루를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곽동현 기자



콩 한알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 실천! (순천시 제공)

화순군 4-H연합회, 공동 학습포 콩 파종 실습

도곡·능주면 일원...판매 수익금 기부도
 화순군은 "최근 최근 4-H연합회는 도곡면과 능주면 일원에 조성된 1만4천378㎡ 규모의 공동과제학습포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콩 파종 실습 및 재배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회원들은 재배 수확이 늘고 있는 우수 콩 품종인 '선풍' 실증포를 운영하며, 콩 파종기 등 첨단 자동화 농기계를 직접 다뤄보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사진)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분포 관리,

병해충 방제 요령 등을 익히며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핵심 역량을 끌어올렸다. 4-H연합회는 정성껏 가꾸 수확한 콩을 향후 직접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기부해 4-H이념인 '지(知)·덕(德)·노(勞)·체(體)'의 참된 가치를 지역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장승희 화순군 4-H연합회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한자리에 모여 함께 밭 흘리며 화합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고흥군 '분청사기 예술 여행' 1기 수강생 모집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20명
 고흥군은 4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도자 예술 문화강좌인 '분청사기 예술 여행'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고흥의 대표 문화유산인 분청사기를 매개로 전통 도자 문화와 예술 표현 활동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1기와 2기로 나눠 운영되며, 1기는 오는 7월8일부터 8월12일까지, 2기는 10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1시30분-3시30

분)에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귀얄기법 분청사기 빚기 ▲전통 물감 만들기 ▲비단부채 만들기 ▲철화기법 도자기 만들기 ▲개다리소반 만들기 ▲캔버스 그림 그리기 등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1기 모집 기간은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6만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결제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박물관 누리집 팝업창의 QR코드를 이용하거나 박물관 방문·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주성학 기자

장흥 '무산김' 글로벌 시장 판로 공략 본격화

무산김(주)·K-글로벌 푸드 등 MOU
세계 10개국 마케팅·유통망 등 확보
자연 햇빛·정청 해풍 전통방식 고수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이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장흥 무산김'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닦을 올렸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장흥무산김(주)·K-글로벌 푸드와 함께 장흥 무산김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최근 대한민국 김은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을 타고 수출 효자 품목인 이른바 '김은 반도체'로 불리며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흥 무산김은 이듬 그대로 산재리를 일일하지 않고, 오직 자연의 햇빛과 정청한 해풍만으로 길러내는 전통 방식을 고수해 국내외에서 친환경 김의 대표 브랜드로 꼽힌다. 우수한 맛과 특유의 향은 물론, 높은 안전성까지 입증받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산업의



장흥무산김(주) 대표 김수현(가운데)이 K-글로벌 푸드 대표 김수현(가운데)과 함께 MOU 체결을 기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엔 군과 손을 잡은 'K-글로벌 푸드'는 대한민국의 우수 식품을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10개국에 전문적으로 수출하고 유통하는 글로벌 총판 플랫폼 기업이다.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탄탄한 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기관은 ▲장흥 무산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간헐한 품질 관리 ▲세계 10개국 대상 현지 맞춤형 마케팅 및 유통망 확보

▲글로벌 K-푸드 시장 트렌드에 발맞춘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 무산김이 세계적인 유통망을 보유한 K-글로벌 푸드와 손잡으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프리미엄 식품으로 도약할 튼튼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장흥의 자랑스러운 무산김이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K-푸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욱 기자

구례군 '제4회 지리산 식물세밀화 공모전' 개최

내달 23-29일 출품작 접수

구례군은 4일 "지리산 자생식물의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4회 지리산 식물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지리산에 자생하는 식물의 세밀화로, 전국의 청소년과 성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 기간은 오는 7월23일

부터 29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완성된 작품을 지참해 한국암화박물관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총 2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총 7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추후 구례 식물세밀화

전시관에 상설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선을 보이며, 시상식은 대한민국암화대전 시상식과 연계해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양식은 구례군청 및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061-780-208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리산의 소중한 식물 자원을 아름다운 예술로 피워내는 이번 공모전에 재능 있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최근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담양군 창평면 해곡3리 부동촌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창평면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성료

담양군은 "최근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담양군 창평면 해곡3리 부동촌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행복버스는 보건·복지·문화 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사에는 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혈압·혈당 측정과 인바디 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안마와 이마옴, 네일아트, 갈갈이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키오스크 활용 교육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재능기부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김미란 해곡3리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전남행복버스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남행복버스는 보건·복지·문화 분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담양=정승규 기자